

보도시점 (지 면) 3. 27.(수) 조간
 (인터넷) 3. 26.(화) 12:00

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(GBC) 입주기업 모집

-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소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정착지원
- 사무공간 제공 및 거점별 다양한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와 중소기업진흥공단(이사장 강석진, 이하 중진공)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(GBC)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
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,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,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,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.

<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모집국가>

구분	미국	중국	베트남	독일	러시아	일본	태국	인도	카자흐스탄	멕시코	칠레	사우디	UAE
지역	· LA · 워싱턴 · 시카고 · 뉴욕	· 베이징 · 상하이 · 충칭 · 선전	· 호치민 · 하노이	· 프랑크 · 프루트	· 모스 · 크바	· 도쿄	· 방콕	· 뉴델리	· 알마티	· 멕시코 · 시티	· 산티 · 아고	· 리야드	· 두바이

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△사무공간(독립실, 공유사무실(오피스)) 제공 △구매자(바이어)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△인·허가,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△졸업-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하였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.

중동시장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* 기술(테크)기업 ‘H2O호스피탈리티’는 ‘23년 10월에 개소한 사우디 리야드 GBC에 입주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빠르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.

* 서비스업(관광업, 호텔업 등)에서 고객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일체의 시스템

의료제품을 수출하는 ‘(주)엑스바디’는 UAE 두바이GBC 입주 후 ‘바이오/친환경제품 인증 및 제품개선’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까다로운 UAE인증서를 취득하고, 현지 계약대행사(에이전트)를 통해 100만불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.

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“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(<https://www.kosmes.or.kr>)내 지원사업-글로벌비즈니스센터-온라인 신청’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글로벌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민규 (044-204-750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성 (044-204-7509)
			주무관	김하령 (044-204-7504)



□ 개요

-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특성화·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

□ 운영현황

- (지원대상)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
- (지원규모) 13개국 21개소 270개실(독립실 기준)
 - 미국(시카고, LA, 워싱턴, 뉴욕), 독일(프랑크푸르트), 러시아(모스크바), 일본(도쿄), 베트남(호치민, 하노이), 태국(방콕), 인도(뉴델리), 카자흐스탄(알마티), 중국(베이징, 광저우, 상하이, 충칭, 선전), 멕시코(멕시코시티), 칠레(산티아고), UAE(두바이), 사우디(리야드)

□ 주요 지원내용

- (사무공간) 독립실과 수출(유망)기업 및 유관기관 등 누구나 이용할 공유형 오피스 제공
 - * 온라인 예약시스템(G-SPACE)으로 신청 가능
- (운영프로그램) 금융·투자, 기술교류, 제품현지화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하여 현지정착 지원 강화
- (민관협업) 정례적인 네트워크 행사 개최 등 현지 네트워크 다변화로 국내외 기업인의 연결 거점으로 활용